



## 여름에 읽기 좋은 책들

한 여름, 참으로 덥다. 집 바깥으로 나가는 일도 시뭇 힘들다. 여름더위는 안개처럼 사라지지도 않는다. 아니 안개처럼 몸을 덮어 버린다. 눈을 감고 첫 눈이 오는 것을 떠올려 보지만 부질없다. 책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온몸이 땀으로 젖어든다. 땀방울이 마당에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꽃들의 가루처럼 내 몸을 적서준다. 과일 하나 입에 물고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한다. 어제 책방에 나가 배낭 가득 읽고 싶은 책들을 사가지고 왔다. 점심 식사를 한 후 나른 한 때를 염려하여, 크게는 산과 들에 작게는 집 마당에, 같은 자리에서 운명처럼 피어나는 꽃과 나무들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 『식물의 역사와 진화』(자크 브로스 지음, 양영란 옮김, 갈라파고스를, 삶과 교양 소설의 상징적 의미를 위하여 『세상의 이치』(프랑크 모레티 지음, 성은애 옮김, 문학동네)를, 시와 시인의 비밀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 『시의 근원을 찾아서』(허만하 지음, 랜덤 하우스 중앙)를 먼저 골랐다. 그러고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다는 것이 새삼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지식인의 책무』(노암 촘스키 지음, 강주현 옮김)가 지금 내 앞에 놓여있고, 파스칼 키냐르의 소설 『허끝에서 맴도는 이름』(송애경 옮김, 문학과지성사)을 금세 다 읽었다. 『허끝에서 맴도는 이름』은 동화이다. 파스칼 키냐르의 『은밀한 생』 『로마의 테라스』 『떠도는 그림자들』과 같은 소설들은 이미 번역이 되어 나왔다. 최근에 『허끝에서 맴도는 이름』이 덧붙여졌다. 곧이어 『마지막

왕국』 『옛날에 대하여』 『심연』 『섹스와 공포』와 같은 소설들이 출간 예정되어 있다. 파스칼 키냐르의 소설들은 오로지 한 사람의 번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정성과 애정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작가의 소설들을 풀어본으로 읽어본 적이 있는데, 번역본이 주는 재미도 크게 있었다. 그것은 풀어와 우리말의 차이를 넘어 공감되는 바가 큰 덕분이다. 우리말과 전혀 다른 풀어리는 문자와 문장이 한글이라는 새로운 문자와 문장의 배열로 의미를 담아 전달하는 과정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다. 풀어와 우리말의 차이를 넘어서는 매력은 작가와 번역자보다도 이 소설을 읽는 독자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 『허끝에서 맴도는 이름』은 '언어와 삶의 기원 그리고 사랑에 대한 철학을 담은 짧지만 향기로운 이야기'이다. 소설의 내용은 한 젊은 여인이 한 남자의 이름을 기억하겠노라고 약속한다. 어느 날 그의 이름을 떠올리려는 순간, 이름이 갑자기 그녀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만다. 망각이 그녀의 입술을 뜨겁게 달군다. 그리고 한없는 절망감이 그녀를 엄습한다. 로 줄일 수 있다. 그렇다. 이 소설은 짧은 이야기이다. 독자로서 덧붙일 것이 없어 보인다. 두 번 언거푸어 소설을 다 읽었다. 읽은 후, 이 소설은 글쓰는 내게 글과 말의 차이와 글쓰기의 고통을 되새겨 주었다. 글을 쓰지만 말할 수 없는 존재, 글을 쓰기 위하여 단어를 탐색하는 고통, 나아가 글을 쓰기 위하여 고정된 시선과 경직된 자세

로 빠져나가는 단어를 향해 두 손을 내밀어 애원하는 태도(13페이지), 글을 쓰고 난 후 언어가 마비된 경험 등이 그것이다. 그것은 작가의 서술대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작가는 소설 앞부분에 지옥은 어디인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있는 어두운 강변, 숨결을 지닌 만물이 숨을 거두는 그곳은 어디에 있는가? 젊은 여인이 방금 따서 내민 사과 속에 들어 있지 않다면 대체 지옥은 어디 있는 것일까? 만물이 영벌(永罰)을 받는다는 장소는 어디인가? 라고 묻기부터 한다. 글을 쓰는 모든 이들은 늘 '언어의 기능부전'을 경험한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느껴지는 구체적인 경험'인데, 언어의 획득과 죽음을 운명이라 말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기능에서 나타나는 장애는 몸이라는 물질 속에 각인된 것들의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 상태로 저장된 것들 중에서 단 하나의 정보를 선정, 축출, 소환,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글쓰기는 기억을 불러들이는 행위이다. 기억이란 무엇보다도 잊혀지게 될 것들 중에서 행해지는 선별작업으로, 견디기 힘든 무엇의 매장에 과감히 맞서는 것이다(72~72페이지). 글쓰는 이는 항상 허끝에서 맴도는 언어, 그 언어의 결여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를 작품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은 글쓰는 이의 이러한 고통이다. 참 좋은 소설이다. 더위, 올테면 와.

안치훈 | 호서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연구평론가